

# 새해 신인그룹 쏟아진다...빅히트·싸이·비, '아이돌' 주목

다양한 형태와 개성 지닌 팀들 대거 론칭 예정  
해외 유명 음악 직배사·국내 기획사와 협업도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선봉으로 '블랙핑크', '슈퍼엠', '트와이스' 등 K팝이 세계를 휩쓴 가운데 올해도 대거 신인 그룹들이 쏟아진다. 대형 기획사가 야심차게 론칭하는 그룹부터 월드스타들이 제작하는 그룹, 세계적인 음반 레이블과 협업해서 제작하는 그룹까지 다양한 형태와 개성을 지닌 팀들이 대거 론칭할 예정이다.

## '빅히트 표' 걸그룹 기대감

올해 가장 눈길을 끄는 팀은 방탄소년단·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투바투)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새롭게 선보일 걸그룹이다. 2012년 선보였던 '글램' 이후 무려 9년 만의 신인 걸그룹 론칭이다.

이번 걸그룹에 대한 기대는 남다르다. 빅히트가 세계적인 음악 레이블이 된 뒤 처음 선보이는 걸그룹이기 때문이다. 민희진 빅히트 CBO, 그룹 '여자친구' 소스뮤직과 함께 준비 중이다.

민 CBO는 SM에서 그룹 '소녀시대', 'f(x)'의 콘셉트를 담당했다. K팝 스타프로는 이례적으로 마니아 층을 형성하기도 했다. 방시혁 빅히트 의장이 음악 프로듀싱을 비롯한 제작 총괄, 민 CBO가 콘셉트와 영상, 이미지를 아우르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팅과 브랜딩 전반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빅히트의 자회사 빅히트 재팬은 '빅히트 재팬 글로벌 데뷔 프로젝트'를 통해 일본을 기반으로 활동할 신인 아이들도 론칭한다.

첫 번째 주저는 엠넷 '아이랜드(I-LAND)'에 참여한 케이(K), 니콜라스(NICHOLAS), 의주(EJ), 경민(KYUNGMIN), 타키(TAKI) 등 5명이다. 이들과 그룹으로 활동할 추가 멤버가 새 오디션 '엔오디션(&AUDITION)'을 통해 선발돼 올해 데뷔할 예정이다.

## 월드스타 싸이·비의 보이그룹은 어떻게?

월드스타 싸이·비(정지훈)가 선보일 신인 보이그룹에도 관심이 쏠린다.

두 가수 모두 솔로로서 한류의 초석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두 사람이 합동 콘서트를 선보일 정도로 서로 친분도 두텁다. 비가 싸이의 단독 콘서트에 게스트로 나서기도 했다.

싸이는 보이그룹 제작을 위해 가수 겸 프로듀서인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크리에이티브총괄책임자(CCO)와 손 잡았다. 두 사람은 올해 방송되는 SBS TV 새 오디션 프로그램 'LOUD:라우드'(이하 '라우드')에서 만난다.

싸이와 박진영이 각 회사를 대표할 차세대 보이그룹 두 팀을 탄생시키는 기획이다.

박진영은 이미 2PM, 갓세븐, 스트레이키즈 등 인기 보이그룹을 키워왔다.

개성 강한 싸이는 어떤 색깔의 보이그룹을 만들어낼 지가 관심사다. 2001년 데뷔한 싸이는 처음에는 '엽기 가수'로 이름을 날렸다. 하지만 자신이 부른 곡을 스스로 만드는 싱어송라이터로서 입지를 굳히더니, 이승기 '내 여자라니까', 힙합그룹 'DJ DOC' '나 이런 사람이야', 서인영 '신데렐라' 등을 작곡하며 프로듀서로도 자리를 잡았다.

2012년 글로벌 히트곡 '강남스타일'로 국제적인 스타덤에 올랐다. 그 해 7주 연속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7주 연속 2위 기록은 올해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핫100'에서 1위를 차지하기 전까지 전무후무한 기록이었다. 이후 국내외 스타들과 협업하며 입지를 다졌다.

2010년부터 대형 기획사 중 하나인 YG엔터테인먼트에 몸 담았으나 지난 2018년 5월 나왔다. 이후 프로듀서·매니저·기획자로 일해 온 자신의 경험을 발판 삼아 자신의 기획사 피네이션(P NATION)을 설립했다.

이곳에는 인기 아이돌 그룹 출신들이 현아와 던, 그리고 제시, 크러쉬, 헤이즈 등 개성강



한 뮤지션들이 대거 속해 있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 트레이닝되는 보이그룹도 기존 아이돌 그룹과는 확연히 다른 색깔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가 제작하는 아이돌 그룹은 정통과 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가 대표로 있는 레인컴퍼니의 첫 보이그룹 '싸이퍼(CIIPHER)'로, 곧 데뷔를 앞두고 있다. 7인조로 리더 문현빈을 비롯해 태국인 멤버 태그, 일본인 멤버 케이타 그리고 휘, 단, 도환, 원등으로 구성됐다.

비는 작년 '강' 여주행 열풍, '놀면 뭐하니?'의 짝사랑 열풍을 일으키며 제2의 전성기를 누렸다. 자신과 세계 관계였던 박진영과 듀오를 결성하고, 지난해 12월31일 신곡 '나로 바꾸자'를 발표하는 등 역동적인 행보를 보이는 현역이기도 하다.

비는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다. 1998년 그룹 '팬클럽'으로 데뷔한 비는 2002년 솔로가수로 나선 뒤 '월드스타' 반열에 오는 1세대 K팝 스타다.

박진영이 이끄는 JYP에 몸 담았고, 방탄소년단에 앞서 아시아 스타로 미국 시장에 도전했다. 지난 2006년 아시아 연예인 최초로 '타임100'에 선정됐고, 2011년 두 번째로 '타임100'에 뽑히는 등 시대를 풍미했다. 2017년에는 톱 배우 김태희와 결혼, 국내를 대표하는 스타 부부가 됐다.

그런 비는 이미 보이그룹을 제작한 경력이 있다. 2009년 데뷔시킨 엠블랙이다. 배우로 확실히 전향한 이준 등이 속해 있던 5인조 팀이었다. 비의 명성에 비해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한 팀이다.

이에 따라 비는 와신상담, 싸이퍼를 통해 '보

이그룹 제작' 능력에 대한 증명을 꿈 꾸고 있다. 그는 빅히트와 CJ ENM이 합작해 보이그룹 '엔하이픈'을 탄생시킨 엠넷 '아이랜드'에 멘토로 나서기도 했다.

K팝이 부상하면서 2010년대 초중반에 이미 글로벌 유명 음악 직배사와 국내 기획사가 협업한 아이돌이 잇따라 선보였다. 유니버설뮤직이 협업한 소년공화국, 소니뮤직이 참여한 와썹 등이 예다. 시황악조를 겪었던 이들이 다시 K팝 신인 그룹 제작에 나선다.

걸그룹 '모모랜드'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는 오는 11일 신인 보이그룹 'T1419'를 선보인다. 글로벌 IT 기업 NHN, 소니뮤직(Sony Music)과 손잡고 국내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시 데뷔를 목표로 기획한 프로젝트다. 데뷔 타이틀곡 '아수라발발타(ASURABALBALTA)'는 힙합, EDM 기반 사운드를 기반으로 삼았다.

걸그룹 'EXID'의 제작자였던 작곡가 겸 프로듀서 신사동호랭이는 유니버설뮤직과 손잡고 신인 걸그룹 '트라이비(TRI.BE)'로 2월 선보인다. 팀명 '트라이비(TRI.BE)'는 완벽함의 상징인 '트라이앵글(Triangle)'의 약자 'Tri'와 존재를 뜻하는 'Be'를 합성한 명칭이다. '완벽한 존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 기존 기획사의 신인그룹

그룹 '마마무'의 소속사인 종합 콘텐츠 회사 RBW는 상반기 중 걸그룹 '퍼플키스(PURPLE KISS)'를 선보인다. 지난해 11월 프리 데뷔 싱글 '마이 하트 스킵 어 비트(My Heart Skip a Beat)'를 공개하며, 프로모션에 이미 돌입했다. 팀 이름은 여러 가지 색이 조화롭게 섞인 보

라색처럼 각 멤버의 다양한 개성이 모여 만들어진 음악적 색깔을 뜻하는 퍼플(Purple)과 많은 이야기 속 사랑의 힘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소재인 키스(Kiss)의 합성어다.

JYP 대표·큐브엔터테인먼트 회장을 지낸 홍승성 S2엔터테인먼트 대표도 올해 중에 신인 걸그룹을 론칭한다고 예고했다. 홍 대표는 비를 비롯해 그룹 '포미닛', '비스트', '비투비', '펜타곤', '씨엘씨', '여자아이들' 등을 제작했다.

더크로스, 테이 등의 음반을 제작한 GF엔터테인먼트는 상반기 중 신인 보이그룹 '킹덤'을 선보인다.

## 4대 기획사가 론칭한 트레저·에스파·엔하이픈·니쥬, 올해 스타덤 오를까

YG의 보이그룹 트레저, SM의 걸그룹 에스파, 빅히트·CJ ENM이 합작한 빌리프랩의 엔하이픈, JYP의 일본 활동 기반 니쥬 등 이른바 4대 기획사가 작년에 선보인 신인 그룹들이 올해도 활약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코로나 신인그룹'으로 통한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속에 데뷔해 팬들과 주로 온라인을 통해 소통했다.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인 뒤 투어 등을 통해 세계 팬들과 더 활발하게 소통한다면, 팬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스타덤 엔터테인먼트의 '크래비티', 플레이엔터테인먼트의 '위클리' 등 작년에 데뷔한 중대형 기획사의 아이돌 그룹들도 올해 성장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SM과 JYP는 올해 새 보이그룹을 선보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세븐틴, 1년5개월 만에 온라인 콘서트... '인-컴플리트'

오는 23일 오후 6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



대세 그룹 '세븐틴'이 온라인 콘서트를 열고 전 세계 팬들과 만난다.

5일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세븐틴은 오는 23일 오후 6시부터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는 '2021 세븐틴 온라인 콘서트 인-컴플리트(SEVENTEEN ONLINE CONCERT in-complete)'를 선보인다.

'인-컴플리트'는 세븐틴이 약 1년5개월 만에 선보이는 콘서트다. 지난해 8월 온라인 팬미팅을 선보인 적이 있으나, 이번에는 20곡 이상의 풍성한 구성과 화려한 퍼포먼스를 더한다.

세븐틴은 지난해 대세 그룹으로 떠올랐다. 스페셜 앨범 ' : [세미콜론(Semicolon)]'으로 '잠깐 쉬어가며 청춘의 향연을 즐기자'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전작 미니 7집 '헝가리'에 이어 음반 판매량 100만 장 이상을 돌파하며 '더블 밀리언셀러' 반열에 올랐다.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외신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6일(현지시간)에는 미국 CBS '더레이트 레이트 쇼 위드 제임스 코든'에 출연한다.

# 박하선·권율 '머느라기' 조회수 1000만뷰 돌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공개

카카오TV 드라마 '머느라기'가 조회 수 1000만뷰를 돌파했다.

카카오M은 지난해 11월21일 처음 공개된 '머느라기'가 5일 오전 기준 7개 분편 에피소드로 조회 수 1029만뷰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동명의 인기 웹툰을 각색한 '머느라기'는 머느리 민사관(박하선 분)이 동갑내기 남편 무규영(권율)을 만나 '시월드'에 입성하면서 겪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담았다. 특히 시월드를 둘러싼 현실감 넘치는 에피소드를 담아내며 2040 여성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에피소드는 1화다. 무규영과 결혼 후 시어머니의 첫 생신을 맞

은 민사관의 시월드 본격 입성기가 펼쳐지며 공개 반나절만에 50만뷰를 돌파한데 이어, 현재까지 약 180만뷰의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종영까지 단 5화를 남겨둔 '머느라기' 후반부에서는 민사관과 무규영, 그리고 시월드에 변화의 바람이 불 예정이다. 자신의 '머느라기'를 자각한 민사관이 시월드 속에서 어떤 머느리이자 아내가 될지를 고민하고,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무규영 역시 행복한 가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가는 과정들이 그려진다

완고하고 보수적이었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알미워 보이기만 했던 시누이도 속내를 보이며 달라진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공개된다.

# 송혜교·김은숙 작가 5년만에 재회

신작 주연 확정

배우 송혜교가 김은숙 작가의 신작으로 돌아온다.

드라마 제작사 화엔담픽처스는 5일 "김은숙 작가가 준비 중인 새 드라마에 여주인공으로 송혜교가 출연한다"고 밝혔다.

김은숙 작가의 신작은 화엔담픽처스와 스튜디오드래곤이 제작하며, 제목과 편성, 세부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

연출은 드라마 '비밀의 숲',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왓쳐', '정춘기록' 등을 만든 안길호 감독이 맡는다.

송혜교와 김은숙 작가는 2016년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한 차례 호흡을 맞췄다. 5년 만에 재회한 송혜교, 김은숙 작가가 어떤 시너지를 보여줄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캐스팅 작업 중이며 하반기 촬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 김수현, 차기작 '그날 밤' 확정

차승원과 호흡 맞춘

배우 김수현이 차기작을 드라마 '그날 밤'으로 정하고 올해도 활발한 활동에 나선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5일 김수현이 차기작 드라마 '그날 밤'으로 돌아온다고 밝혔다.

'그날 밤'은 한 여인의 살인 사건을 둘러싼 두 남자의 치열한 이야기를 통해 지극히 대중적 시각에서 형사사법제도를 파헤치는 드라마다. 영국 BBC에서 방송된 '크리미널 저스티스(Criminal Justice)'를 한국 정서에 맞춰 리메이팅한 작품이다.

김수현은 지난해 tvN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로 따뜻한 힐링과 감동을 전했지만, 올해는 긴장감 가득한 장르물 드라마를 선보인다.

그는 전작과는 확연히 다른 결의 캐릭터와 연기를 보여줄 예정이다.

김수현은 성실하고 평범한 대학생 '김현수'역을 맡아 허투름의 실수로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된 삶을 연기한다. 이기적이고 무자비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악을 쓰는 인물이다. 매 작품 뛰어난 몰입과 연기를 선보이는 김수현이 '그날 밤'을 통해 보여줄 새로운 모습이 기대를 모은다.

특히 상대역으로 출연하는 차승원과의 호흡



은 물론 평범한 삶에서 극도로 치닫는 인물로 변신할 김수현의 모습에 관심이 집중된다.

수많은 히트작을 제작한 드라마 명가 조국 배미디어와 '열혈사제', '펀치', '괴수물', '편의점 셋별이' 등을 연출한 이명우 감독이 설립한 디스튜디오엔 그리고 골드메달리스트가 의기투합해 공동 제작한다. 연출은 이명우 감독이, 집필은 '무사 백동수', '대박' 등을 쓴 권순규 작가가 맡았다.